

동부권

여수 석탄화력 발전소 신설 거센저항

2조7000억 들어 공유수면 매립 부두건설 등 2019년 완공 시·의회·시민단체 온실가스 배출 등 환경 오염 우려 반대

한국 동서발전이 여수산단 인근 광양항 지역에 석탄(유연탄) 발전소 건설에 나섰지만 관련 기관과 지역사회 등의 반발이 거세다. 한국 동서발전 호남화력발전(이하 동서발전)은 "지난 1973년에 지어진 500MW급 발전소가 2020년에 수명을 다해 폐지에 따라 대체 발전소 건설에 착수했다"고 5일 밝혔다. 동서발전은 여수시 월내동 전면 공유수면을 매립해 2조7000여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설비용량이 지금보다 4배 더 큰 2000MW(1000MW급 2기)급

대체 발전소 건설을 오는 2019년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동서발전은 지난해 6월 국토해양부에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 요청을 신청해 현재 지자체와 환경부 등의 의견 수렴 과정에 있다. 국토해양부는 오는 6월 중앙 연안심의회위원회를 개최해 '제3차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반영·고시를 통해 최종 승인할 예정이다. 승인이 나지 않을 경우 대체 발전소 건설은 전면 백지화되고 현재 발전소 유치를 신청한 경남 남해, 전북 부안, 강원 고성 등으로 이전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여수지방해양환경청은 동서발전이 공유수면 매립지에 7만급 부두를 신설할 경우 기존 GS칼텍스 제 품목두 등을 이용하는 선박들의 선체에 따른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여수시와 여수시의회도 해양생태계 파괴 등을 우려해 공유수면 매립지를 축소할 것과 석탄재와 온실가스 등에 따른 대기환경 오염을 우려하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조건부 의견을 제시한 상태. 이에 대해 동서발전은 공유수면 매립지 축소 의견을 수용하고 석탄 재 활용률도 당초 계획보다 10% 더 끌어올려 80%까지 재활용해 시멘트 혼화재 등으로 매각한다는 방침이다. /동부취재본부=박성태기자 mihang@

또한 석탄 비산먼지 발생에 대해서는 선박 이송과 운반, 저장 등 모든 과정을 밀폐형으로 설계해 석탄재 발생을 최소화하고, 온실가스 감축은 CSS(Carbon Capture & Storage) 등의 첨단 설비를 통해 현재보다 40% 이상 더 절감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신설 부두에 따른 선박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뚜렷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해 부두를 소유한 GS칼텍스, LG화학 등의 인근사들과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동서발전 관계자는 "현재 호남화력은 10년 전부터 친환경기업으로 인정받고 있는 만큼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갖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박성태기자 mihang@



외국인 가족 녹차만들기 체험 5일 보성 녹차대축제 찾은 외국인 가족이 녹차만들기 체험을 하고 있다. 보성군은 오는 8일까지 보성차밭 일원에서 찾았 따기 체험, 차음식 만들기, 다례시연 등 다채로운 행사를 펼친다. (보성군 제공)

곡성 두가교 9월 완공

재가설 공사 본격 착수 지난해 가을 섬진강 유역에 쏟아진 집중 호우로 무너진 곡성 두가교가 오는 9월 완공된다. 곡성군은 지난해 36억원의 예산을 확보, 길이 200m, 폭 3m의 두가 현수교 복구사업 실시를 위해 용역과 소방방재청의 심의를 모두 마치고 본격적인 재가설 공사에 들어갔다. 두가교는 집중 호우에 대비해 통수 단면적과 교량 여유고를 향상시키는 한편 3차원 케이브 방식을 채택, 바람

에 의한 진동을 최소화하고 보행시 안정감을 확보하도록 설계됐다. 또 다리 길이를 이전보다 30m 더 연장하고 브이(V)자형 주탑을 적용해 보행자의 개방감을 확보하고 주변 지형과 잘 어울리도록 만들어진다. 두가교는 지난해 9월 17일 집중 호우와 섬진강댐 방류가 겹치면서 섬진강 수위가 계획 홍수위보다 1.5m 정도 더 상승, 다리 상판이 완전히 엇가닥처럼 휘어져 강바닥에 주저앉고 말았다. 이 다리는 국도 17호선에 접한 곡성군 옅곡면 송정리와 강 반대편 고달



면 두가리를 잇는 현수교로 섬진강을 가로지르면서 관광객들에게 훌륭한 볼거리를 제공했다. 곡성군 관계자는 "부드러운 이미지

광양제철 창 의 놀이방 '포레카' 오픈

포스코 광양제철소는 지난 3일 김준식 광양제철소장과 최항기 광양제철소협회 대표, 안중순 광양제철소 외부파트너사 협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포레카' 오픈식을 가졌다. 제철소내 6시그마센터 1층에 문을 연 '광양 포레카'(면적 960㎡)는 직원들의 창의력 개발과 자율적인 휴식을 통해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구성되고 만들어진 창의공간이다. 이곳에는 집중적으로 업무를 진

행할 수 있는 '플로 존(Flow zone)'을 비롯해 ▲동료와 게임, 오락 등을 즐기면서 소통할 수 있는 '펀 존(Fun zone) ▲혼자만의 명상이나 독서, 휴식을 하고 싶을 때 이용할 수 있는 '리프레쉬 존(Refresh zone)' 등으로 구성돼 있다. 또한 창의공간 교육 공간과 초록정원 등을 갖추고 있다. 이 밖에도 업무중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구성된 다양한 식사와 각종 과자류 및 향이 좋은 커피를 마시며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카페

6시그마센터내 24시간 운영 게임 등 휴식 통해 창의 증진 테리아 공간도 갖추고 있다. '포레카'는 제철소에서 근무하는 포스코와 포스코케미칼사 직원 모두가 이용가능하며, 제철소가 24시간 가동되는 점을 감안해 24시간 운영을 계획하고 있다. 평일 오전 8시부터 저녁 8시까지의 안내를 담당하는 직원이 상주하며, 이후 시간에는 업무에 관계없이 원하시는 시간에 이용할 수 있다. 직원들의 호응도에 따라 주말에도 자율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동부취재본부=박성태기자 pyj4079@

순천 테마형 자전거 코스 개발

상사호~순천만 45km 호반 벚꽃길 조성 국비 요청 전국 10대 자전거 거점도시 순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순천시는 남도의 문화를 엿보면서 느낄 수 있는 11개 코스 223km로 이뤄진 '남도 삼백리길' 가운데 '호반 벚꽃길'을 테마형 자전거 코스로 개발하기 위해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 45km 길이의 '호반 벚꽃길'은 봄이면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는 상사호를 돌아 선암사를 거쳐 순천만으로 돌아오는 코스이다.

이와 함께 보성군과 광양시를 연결하는 국가 자전거 도로 구축사업도 도시 보상에 들어가 순천만과 201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장을 연결한 자전거 테마코스도 조만간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또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무인 공영자전거 '은누리'는 주말 이용이 1000회에 이르는 등 인기가 높아 올해에도 5개소 90대를 확대 설치할 예정이다. /동부취재본부=김은종기자 ejkim@

섬진강의 봄, 철쭉꽃의 향연

내일부터 철길철쭉 축제 곡성군은 7일 섬진강변 기차 숲길에서 '섬진강 철길 철쭉축제'를 개최한다. 이번 축제는 섬진강 철쭉꽃길 걷기여행을 비롯해 마술공연 및 관광객 노래자랑, 실버인형극, 7080 통기타 음악과 전통놀이 체험, 소담구지 체험 등 다채롭게 열린다. 행사를 준비해 처음 열리는 '섬진강 철쭉꽃길 걷기행사'는 이번 축제의 백미이다. 행사 개최지는 '전국 10대 아름다운 드라이브 코스'와 '사진찍기 좋은

명소'로 선정된 바 있다. 이번 걷기대회는 곡성 고달면 두가리(청소년 야영장) 가령역에서 출발해 심청이야기 마을과 오곡 송정 산리목장을 지나 팔각정을 반환점으로 총연장 5km 구간에서 진행된다. 예상 소요 시간은 1시간 30분 ~ 2시간이며, 걷기코스 완주자에게는 완보기념품을 제공할 계획이다. 보건의료원측은 스트레칭과 바른 걷기 자세를 선보이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건강팔팔마를 동우회에서 자원봉사 할 계획이다. 문의(061-363-8543)/동부취재본부=김계중기자 kjkim@

광양 기업의 날, 고흥 발포에 총무공 테마 역사체험관

광양시는 최근 친기업 분위기 조성 과 기업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기(氣)를 살리기 위해 '제 2회 기업의 날' 행사를 갖고 (주)삼우에코(대표이사 허가복)를 선정했다. '기업의 날'은 수출 유망 대기업, 중소기업에 대상으로 접수를 받은후 업체를 지정해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초남공단 입주 중소기업인 (주)삼우에코는 1995년 창립해 90명이 급속 조립제를 생산하고 있으며 유망 중소기업, 벤처기업, 기술 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 등으로 지정된 바 있다. /동부취재본부=박성태기자 pyj4079@

고흥군 도화면 발포리에 임진왜란과 관련된 총무공의 발자취와 임진왜란을 승리로 이끈 고흥의 숨은 인물들을 테마로 한 '역사전시 체험관'이 문을 열었다. 고흥군은 국비 11억원 등 총 사업비 16억원을 투입해 부지 5600㎡, 건축면적 404.6㎡에 전시실, 체험실, 임진왜란시 순절한 송씨 부인 열녀 동상과 휴게시설 등을 갖춘 '발포 역사전시체험관'을 최근 준공했다. 고흥군의 옛 지명인 흥양현은 조선시대 전라좌수영 5판 5포중 1판 4포가 설치된 곳이다. 이 가운데 발포진

은 이 총무공이 임진왜란 발발 10년 전인 1582년 36세의 나이에 처음으로 수군의 만호라는 관직으로 18개월 동안 근무했던 역사적인 곳이다. 발포마을에는 아직도 발포성벽이 거의 원형상태로 보존돼 있으며, 임진왜란 당시 선박을 숨긴 굴강과 '관아의 오통나무도 국가의 것으로 사사로이 쓸 수 없다'라는 총무공의 일화로 유명한 오통나무의 터가 남아있다. 군은 앞으로 마을을 굴강과 발포성곽, 오통나무터, 선소 등을 복원, 역사체험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동부취재본부=주각중기자 gju@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Asset Korea, featuring a table of property listings with columns for location, area, price, and contact info. Includes sections for '경매에 관한 모든 상담' and '유동화 자산매각 전문회사 주식회사 에셋코리아'.